

가을호 (Vol. 41)

서신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 : 5 - 6

계간 서신원 2019년 3(가을)호, 통권 41호

발행인 현유광 | 편집인 장석조 | 창간일 2010년 9월 9일 |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발행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

전화 02-845-7711 | 홈페이지 <http://www.sb.ac.kr>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누가 신학(神學)을 하는가?

총장 현유광



신학은 ‘하나님 학(學)’입니다. ‘학(學)’은 배움 ‘학’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을 정의하면, 누가 신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학을 해야 합니다.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제가 청소년 때 유행하던 팝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당신을 알고 알고 또 아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

하게 되는 것입니다.(To know know know you Is to love love love you)”로 시작합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티렉스(T-Rex)라는 보컬 그룹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새벽기도회나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매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루하루

66

많은 청년들이 2020년 3월에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은 생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신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99

조금씩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친구로부터 평소 존경해오던 김○○ 선생님을 소개 받았다고 가정(假定)합니다. 통성명(通姓名)을 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도 오고 편지(이메일)도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이메일)를 읽지도 답장도 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러브레터(사랑의 편지)를 성경이라는 책에 담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보다 더 편리하고 빠른, 언제 어디서나 잘 터지는 기도의 소통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도 그리고 성경공부나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움 곧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서는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교리나 신앙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의에 포함된 ‘이론적’이라는 단어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신학(하나님을 배움)은 누구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신학교에 와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현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조금 더 이론적,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이 2020년 3월에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녀들을 다 대학에 보냈거나 결혼을 시켰거나 해서, 여유가 생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신학교에 오셔서 공부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신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금년 12월이 되면 신학교 입시가 시작됩니다. 남은 2~3개월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오셔서 성경,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사회복지 등의 과목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되실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갑시다.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신학을 함으로써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천교회

담임 서정환 목사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20



살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안천교회는 교회 설립 45년이 된 교회입니다. 안천 교회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설립 될 때, 저는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철저한 불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마을에 교회가 섰던 것입니다. 안천교회 초대 교역자로 당시 노왈수 조사님(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4,6대 총장 역임)께서 오셨습니다. 전도에 열정이 많으셨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오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자하신 조사님에 대한 관심은 온 동네에 빠르게 알려졌고, 교회는 개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을에 많은 청년들이 다니게 되었고, 저도 선배들을 따라, 재미를 따라 주일학교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2학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적인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저는 가족들을 모아 놓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신학 공부하는 것만은 막지 말라고 호소하며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정을 알아서 교회 사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2년 정도 신학을 하면서 교회 사찰을 겸했고, 방학이 되면 공사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육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천 교회 2대 목사님 이신 홍순우 목

사의 딸인 현재 제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안천교회는 저를 1989년 대신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했고, 그때 저는 27살의 나이였습니다. 27살의 나이에 단독 목회를 시작한 이후,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신원 예담 교회, 싱가포르 한인교회, 동천교회, 한우리 교회, 미국의 뉴욕 교회, 워싱턴 온마을 교회에서 24년 동안 부 교역자, 담임 목회자의 길을 걷던 중, 2013년1월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던 교회,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던 교회, 목회의 첫 발을 내딛게 해 주었던 안천교회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에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간지 10년 되던 해였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정착을 했던 때였기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안천교회였기에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안천교회를 담임 한지 만 6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안천교회 담임을 시작할 때 장년부 200명이 조금 넘는 교회 였습니다. 지금은 장년부 480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 주일학교 약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 드립니다.

안천교회를 담임하며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 방향이 있습니다. 안천교회는 두 바퀴 목회 원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는 성경입니다. 철저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며,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직접 창~계 까지 매 학기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배운 성경을 새가족 훈련, 성장반 훈련, 열매반 훈련, 제자훈련,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삶으로 승화 시킵니다.

다른 한 바퀴는 선교입니다. 19개 미자립 지교회

및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으며, 2015년 부터 캄보디아 빠떼랑 지역에 빠떼랑 안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빠떼랑 안천교회를 세워,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빠떼랑에 세워진 학교에는 매일 18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 100명 정도 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와서 매주일 예배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바퀴를 이끌어 가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 입니다.

지난 2014년은 안천교회가 설립 된지 40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지나간 4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는 2054 비전 선언문을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그 비전을 따라 2054년까지 또 다른 40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2054 비전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교단의 그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다음 세대에 넉넉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2054년(교회 설립 80주년)까지 국내외에 2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5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하며, 4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워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천 교회를 내려다보실 때에 그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넘쳐나시기를 소원하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경영하는 기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는 안천의 가족들이 있어서 늘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M.Div 3년의 반환점에서 회고와 전망

M.Div 2학년
김경태 전도사



먼저는 지난 3학기동안 삶의 순간 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낮, 밤으로 수고해주시고 열정으로 가르쳐 주셔서 바른 신학과 신앙의 경건에 이르게 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선후배 원우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위로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많은 신학교들 가운데 서울성경신학대 학원대학교로 이끄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기에 더욱 감사드리게 됩니다. 짧은 신대원 학업의 절반을 마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림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불충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학업 및 개인의 시간들 속에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은 그것과 반비례하지 않았는지 또한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났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예배가 시작되고 시간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예배의 시간이 끝난다.”고 하는 것처럼, 신학생으로서 일반성도들보다 더 높은 경건과 도덕이 요구됨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자신에게 양심의 거울을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함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쳐서 복종케하고 죽이지 않는다면 남은 절반의 시간이 흘렀을 때 허무함과 후회감이 밀려올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의 계획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에 충실하며 정직하다면 그 현재가 곧 내일과 미래의 준비된 사람으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조국의 교회와 신학교를 볼 때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매스컴을 통해 듣고 보게 됩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부흥하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외형적인 모습이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

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130여년이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축복받는 한국의 교회를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급속도로 축복과 성장이 이제는 급속도로 퇴보되는 위기를 맞게 됨을 보게 됩니다.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듯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성화)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에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퇴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언론으로부터의 기독교를 향한 공격과 이단사상과 동성애, 이슬람의 위협 등이 갈수록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개 교회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신본주의사상을 외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인본주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말씀보다 앞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신학교의 위기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정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고 많은 신학교들이 있지만 비록 작지만 이 서신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개혁의 일꾼들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진리 앞에서는 늘 강직하면서도 그 외의 것에서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원우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학교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학교와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과 교직원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 바른 영적인 리더들을 배출시키는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EWS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 사진 교내 설치

우리 본교의 역사를 되새기며 기리고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 관련 사진들을 교내(1층과 지하층 사이 계단 벽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사진 자료를 제공해 주신 송경한 목사님(동천교회)과 사진 보정작업과 설치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진수봉 장로님(창대교회)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학교에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한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정기적으로 바뀌어 게시할 계획입니다.



서신원 개교 66주년 기념행사

지난 10월 1일(화) 본교 개교 66주년(1953.10.01. 성경학교 기점)을 기념하는 예배와 세미나가 비전홀에서 있었습니다. 1부 감사예배는 현유광 총장의 인도로 김대진 교수의 기도, 총회장 이재성 목사께서 마가복음 6:45-52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고신대 명예교수, 현 백석대 석좌교수이신 이상규 박사께서 “한국장로교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시고, 강철, 김동민 목사 그리고 김세현 교수(시드니신학대)가 참여한 패널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순장교단이 나아갈 길을 가늠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EWS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2019학년도 제2학기 개강집회

9월 3일(화)에는 개강집회가 있었다. 첫째 주간은 교단 교역자 수련회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둘째 주간에 개강집회(예배와 특강)를, 안양석 수교회 김찬곤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가졌다. 김 목사님은 삼하7:18-22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이옵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예배 시 조윤택 전도사님이 “태초에 말씀”이라는 자작곡으로 특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부 예배 후 식탁교제를 했다. 이어서

“제자도”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강의를 통해 건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수고해 주신 김찬곤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학기 경건회 설교

이번 2학기 들어 매주 화요일 11:20-12:00에 가지는 본교 경건회 시 교단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김동민, 김일수, 홍문식, 이근우, 그리고 손근수 목사님이 그 동안 수고해주셨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2학기 졸업자

M.Div. 최형중, 장영욱, 손상일
Th.M.(성경주해) 유영국, 고원주
Th.M.(신약) 강향숙
Th.M.(조직) 이종재, 장창한

졸업을 축하합니다!

2019년 2학기 신·편입생

M.Div. 장시아, 김경옥, 이희창,
김상아, 강미라(MBS)
Th.M. 임준순, 김용희, 변혜복
Th.M. 장영욱

MA편입 상담 이승아
MA편입 사회복지 김명선
MA편입 사회복지 김병철

신·편입을 축하드립니다!

NEWS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제67회 총회, 총회장 선출

신원예닮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며, 본교 초빙교수이신 이재성 목사님이 본교단 제67회 총회 (2019년 9월 23일 오전 11시 ~ 24일 오후 1시, 장소 :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 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 되셨습니다.



교수 동정

박영복 교수는 일반교원 조교수로 승진하고, 배춘섭 교수와 김규보 교수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였다. 김대진 교수는 전임교수직을 사직하고 대천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게되어 겸임교수로 섬기게 되었다.

성경신학저널 원고모집 공고 『성경신학저널』 제10호 (2019년 12월 발행)

본 연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논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하여 학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논문 투고 마감일** : 2019년 12월 2일(토) 23시 50분까지(시간엄수)
- **논문작성방법**
 - ① 주제 : 목회현장에 유익한 교회와 관련된 주제 또는 자유주제
 - ② 분량 A4용지 10면전후(일반성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 ③ 필수내용 : 국문·영문 제목, 국

- 문·영문 초록, 국문·영문 저자명, 참고문헌 포함
- ④ 각주 및 참고문헌은 15개 전후로 가능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소 소장인 장석조 교수(kssj324@gmail.com, 010-8846-7720)에게 문의바랍니다.

기부금 내역

2019.06.01 ~ 2019.09.30.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미랑	김남희	김현숙	박천수	이성매	전양순	최경림	황태근
강미영	김민석	김혜숙	손계숙	이세진	전영희	최근현	황희자
강영숙	김병호	나성엽	신은주	이예찬	전웅현	최동일	
강화순	김 석	남분식	심은혜	이용대	전충현	최손생	동천교회
고명성	김선동	박미란	안춘희	이정순	정보원	최수연	유니게션교회
공인애	김선성	박병우	양명환	이정희	정복희	최영숙	루디아장학회
구희원	김선종	박소순	양영자	임용태	정선녀	최주창	신원예닮교회
권선애	김성희	박순자	우윤해	임진화	정성기	최택규	연합전도회
권태연	김승자	박순희	유승인	장명분	정은희	최한이	춘천교회
권태영	김승희	박영복	유현희	장석조	정정희	현나영	한우리교회
기성숙	김영애	박영선	윤석연	장영철	조경휘	현소영	
길기한	김은태	박영심	윤성자	장인성	조영철	현유광	
김군자	김인숙	박예순	이경아	장임순	진민우	현윤재	
김규보	김준모	박지호	이명순	전계현	차명란	황기연	

발전기금후원안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후원자님과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들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참여안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에 뜻을 두고 계신 교회, 기업, 졸업생,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후원** 월 1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1구좌 = 월 5,000원, 10구좌 = 월 50,000원) 기한은 1년 또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070)-7169-4100 손계숙 팀장에게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사이 전화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특별후원** 국민은행 040001-04-16708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농협은행 301-0043-7048-1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계좌로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송금하신 후 (070)-7169-4100으로 후원 목적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성경주해 키 세미나

일시 : 2019. 12. 16(월)
강사 : 장성길 박사(구약)
최순봉 박사(신약)
안석일 박사(구약)
강대훈 박사(신약)

순수신앙, 진리탐구, 바른인격

www.sb.ac.kr

2020학년도 신입생모집

목회자를 위해 특화된 전문과정
- 성경주해 및 조직신학 전문과정(Th.M/Ph.D)

모집학과목			
신학 과정	성경주해, 신·구약학, 조직신학 (Ph.D - 3년, Th.M, M.A - 2년)	월	00명
	목회학석사(M.Div - 3년)	주간 : 화, 목 / 야간 : 월, 화, 목	
	성경학석사(M.B.S - 2년)	화, 목	
전문인 과정	상담 전공(M.A - 2년/주간)	목	00명
	사회복지 전공(M.A - 2년/야간)	화, 목	

※ 각 과정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람

전형
안내

원서접수 2019년 10월 21일(월) - 11월 20일(수)까지
전 형 일 2019년 11월 22일(금)

등록
문의

Tel: 02-845-7711 또는 홈페이지(www.sb.ac.kr)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지하철 2호선 4번출구, 도보 5분)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